

■ 발행일: 2026년 08월 18일 ■ 전화: (033)730-7871 ■ 발행인: 금속노조 만도지부 원주지회장 김택수

중대재해,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 원주지회, 안전 원칙, 바로 세운다!.

평택공장의 중대재해는 어느 사업장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원주지회 역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7월 31일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장의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산보위 발언의 원주공장 유희인력 주장, 명확한 근거 밝혀라.

원주지회는 장기간 신규채용 없이 퇴직과 인력 감소가 이어지면서 적정인력이 부족하고, 노동강도 증가와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전사 산보위에서 회사 측은 원주공장에 유희인력이 존재해 현재 인력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실제 유희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부서에 어떤 기준으로 유희인력이라고 판단했는지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결원이 발생해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기계·전기·설비보전과 안전·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2인 1조 작업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중간관리자까지 현장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유희인력이 존재한다며 현재 인력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회사는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부서별 정원·현원·결원과 실제 유희인력 현황을 공개하고 적정인력 산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원주공장의 적정인력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업무량과 안전을 반영해 노·사가 함께 검증하고 결정해야 한다.

■ 안전관리감독자, 회사에 잘 보여 가는 자리가 아니다.

안전관리감독자는 노사협의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보다 회사에 잘 보여 보직을 유지하거나 퇴직 전 자리보전을 위한 자리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안전관리감독자는 회사의 눈치를 보는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안전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노사가 함께 운영과 활동을 점검하고, 회사에 충성하는 자리가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세워야 한다.

원주공장 안전 점검 강화!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동안 원주공장 통합 이전과 생산물량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작업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왔다. 하지만 **생산과 공장 운영의 변화가 클수록 현장의 위험요인과 작업환경은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안전과 유해 요인 문제를 미룰 수 없다. 현장 곳곳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안전시설과 작업절차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작업환경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다시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 회사도 인식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올해 원주공장이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데에는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조합원들의 노력이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생산성과 성과가 높아지는 동안에도 현장 곳곳에는 여전히 위험요소와 열악한 작업환경이 남아 있다.**

성과는 노동자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고,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안전과 유해 요인 개선은 비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회사의 기본적인 의무다.**



회사는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열악한 환경과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 노동조합도 현장을 지키는 안전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원주지회는 조합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위험요인과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합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요구하고 대응할 것이다.

중대재해는 우연이 아니다.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 원칙을 지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생산보다 안전이 우선되는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회사도 적극 나서야 한다.**